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이 온다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 인문학창고 '정담' 내일 개관

군산대학교가 지역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인문관광 콘텐츠를 발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인문학창고 정담(情談)을 개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문학창고 정담(情談)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LINC+ 인문산학협력센터가 군산세관 내 창고공간을 위탁운영 받아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와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군산세관은 역사적 공간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교두보의 역할을 확대하며 군산세관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군산대학교는 인문학창고 정담(情談) 52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연계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통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관식은 내일 오후 3시부터 1부 축하공연 및 축사, 2부 은회경 소설가의 개관 강연으로 진행된다.

군산대학교는 개관과 함께 국내 인문관광 콘텐츠 발전모델을 제안하고 군산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재미있고 유익한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인문학창고 정담(情談)52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영화,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음식,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다채로운 일상의 풍경들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 문화콘텐츠 집안이다.



내일 개관하는 군산대학교 인문학창고 '정담'.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현재 수강생을 선착순 50명 모집 중이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http://hlc.kunsan.ac.kr/>) 혹은 유선전화(063-469-4290~1)로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년 중 진행될 계획이고, 첫 프로그램으로 '겨울 정담(情談)-52'가 내년 1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월 3일 김효영의 생활콘서트 '환생'으로 시작된다. 둘째 주부터는 ▲김용택 시인의 '시와 문학' ▲군산대 김성환 교수의 '장자와 함께 하는 놀이와 자유의 철학' ▲우주물리학자 황정아 박사의 '우주 날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대 홍정표 교수의

'디자인과 인생'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오길용 인문산학협력센터장은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인문학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인문학 창고 정담은 군산지역에 지식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과 사유의 방식을 다양하게 제안하면서 지역 사회 삶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군산인문학강좌인 '인문학 창고 정담(情談) 52'는 겨울 프로그램 외에도 봄, 여름, 가을 연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문화와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

원조 한류 걸그룹 '김시스터즈' 성공기, 미국서 뮤지컬로

한류 걸그룹의 원조 격으로 미국 데뷔 60주년을 앞둔 '김시스터즈'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미국에서 제작된다. 디모킵 뮤지컬 팩토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트라이 아웃 공연을 목표로 김시스터즈 관련 뮤지컬이 제작 중이다. 김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79)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오프브로드웨이에 '컴포트 우먼', '그린 카드', '인터뷰' 등의 뮤지컬을 올린 김현준 디모킵뮤지컬팩토리 공동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미국 영화·공연 프로듀서 루카스 포스터가 힘을 보탠다. 포스터 프로듀서는 영화 '미스터 & 미스즈 스미스', '맨 온 파이어' 등을 제작했다.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1916~1965)과 당대 유명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 김해송(1910~?)의 두 딸들(김숙자·김애자)과 이난영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룡의 딸 이민자(활동명 김민자)로 구성됐다.

1950년대 미8군 무대와 극장 무대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60년대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해 인기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대 '비틀스',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대중음악 팀들이 대거 출연한 CBS TV '에드 쉐리번 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6·25 동안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위안이 될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됐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을 뿐 아니라 악기도 자유자재로 다뤘다. 뮤지컬에서도 김시스터즈의 이야기는 이난영·김해송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

된다. 이들이 미8군 무대에서 유명해진 뒤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인기를 얻어 가는 과정을 그린다.

포스터는 디모킵뮤지컬팩토리를 통해 "김시스터즈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성공스토리가 아닌, 강한 드라마"라면서 "이들의 인생과 고난, 커리어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미국과 세계 관객에게 들려주고 싶어 제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웨이를 목표로 한 뮤지컬로 제작하는 동시에, 미국 전역에 내보낼 TV 시리즈로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출은 "K팝 스타들의 미국 진출 성공과 아시안 할리우드 스타들이 여러 방면에서 주목받는 것을 보며, 지금 이 순간이 미국 무대에 아시안의 이야기를 올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김시스터즈의 이야기는 문화와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힘이 있다"고 봤다.

/뉴시스

임실군합창단 정기연주회... 150여명 참석 속 성황리 열려

임실군(군수 심민)이 후원하고 임실군합창단(회장 권오현)이 주최한 '2018 임실군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22일 임실문화원에서 임실군수를 비롯한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임실군합창단 정기연주회는 한 해 동안 임실군합창단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꾸준히 연습해 온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흥겨운 합창을 통해 겨울철 얼어붙은 군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임실군합창단 권오현 회장은 "임실군합창단은 단순히 우리끼리 즐기는 합창이 아닌, 지역민과 더불어 아름답고 명랑한 지역 분위기를 만드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임실군합창단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겨울밤의 낭만과 함께 아름다운 합창 공연으로 특별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지난 22일 임실문화원에서 성대히 열렸다.

진안 문화예술 발전 이끈 '예술인의 밤' 성료

(사)진안예총(지회장 이승철)은 최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진안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술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예술상 및 공로상 시상, 원로예술인 실태조사 성과보고와 화합한 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 진안예술상에 전근표(문인협회), 예총·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위한 예술공로상에 이진옥(미술협회), 박지영(음악협회)씨가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

상이 진행됐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한 원로예술인들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부에서는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유로운 어울림 행사가 이어졌다.

이승철 회장은 "올 한해 진안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모든 예술인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왕성한 예술창작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예술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